

# ‘위기 속 다른 선택’… 해외는 구조조정, 국내는 인재 확보

글로벌 기업들 경영 불확실성 대응  
삼성·현대차, 기술투자·인재채용  
LG·SK 등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인텔·폭스바겐 등 구조조정 단행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인텔과 테슬라, 폭스바겐 등은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위기속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인재 확보에 나서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텔은 인력 15%, 시스코는 인력 7%의 구조조정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다.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지난 4월 인력 10%를 구조조정할 것을 사내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직원은 14만473명으로 이 중 10%면 1만4000여명 규모다.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도 수익성 악화로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글로벌



ChatGPT에 의해 생성된 ‘SK하이닉스·삼성전자’ 관련 이미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며 생존체제에 돌입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미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수 인재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19개 관계사들이 하반기 공개채용에 돌입했다. 삼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의무’라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

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채용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이재용 회장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며 “저와 삼성은 세상에 없는 기술, 우리만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삼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나선 상황에서도 꾸준한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실제 삼성

전자 국내 임직원 수는 2018년 10만 3011명에서 2024년 6월 12만8169명으로 약 25% 가까이 늘었다.

삼성은 공채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우수 인재를 확보해 육성함으로써 회사와 국가 미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테슬라와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대규모 인력 채용을 진행한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차는 오는 14일까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총 6개 분야의 36개 직무에 대해 신입사원 및 신턴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기아도 오는 9일부터 19개 분야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현대위아는 오는 23일까지 차량부품과 방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전기가동차용 ‘열관리 시스템’ 분야의 설계, 시험 평가, 선행 해석 등 전 부문에서 인재 확보

에 나선다. 최근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방산 분야의 인재도 채용한다. 현대위아는 K9자주포와 K2전차 등의 무장체계를 만들고 81mm 박격포, 원격 사격통제체계, 대 드론 방어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다. 총 8개 부문 29개 분야에서 채용이 진행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LG에서는 LG전자가 오는 18일까지 TV, 가전, 전장 등 주요 사업부별로 연구개발, 품질, 생산, 디자인, 영업·마케팅 등의 인재를 채용한다. SK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오는 10일부터 신입·경력(주니어탈렌트) 공채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축소시키고 있다”라며 “위기속에서도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통한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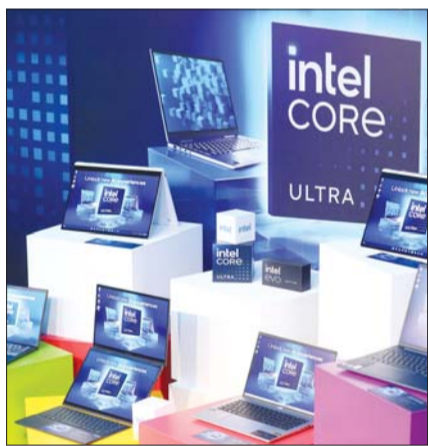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CPU·파운드리’ 혁신 실패… 인텔, 설립이래 최대 위기

CPU 시장서 AMD에 밀려 점유율 ↓  
파운드리, TSMC·삼성에 격차 커져  
직원 15% 감원 구조조정 계획 발표

인텔이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대표 사업인 CPU 시장에서 경쟁사의 맹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혁신에 실패하며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다. 경직된 조직문화와 관료주의적 기업 문화가 중요한 순간 연이은 실수를 불렀다는 평가다.

4일 로이터통신은 인텔이 올해 주가가 60% 떨어지며 다우지수 편입 종목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다. 인텔은 이날 기준 시가총액 859억 달러(115조 3000억 원)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서 밀려났다. 인텔은 자구책으로 이달 중순 이사회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인텔이 19일 서울 성동구 플란티스 성수에서 ‘AI Everywhere’ 쇼케이스를 가지고 인텔의 AIPC 전략 및 인텔 코어 Ultra 프로세서를 탑재한 최신 노트북들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정리하고 자본지출을 개선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내용을 예정이다.

인텔의 주가 폭락 배경에는 반도체 주도권을 잃으며 기록한 충격적인 실적 결과가 있다. 인텔은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총매출은 전년 대비 0.9% 떨어진 128억 3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영업손실은 25.12% 하락한 10억 2100만 달러, 순손실은 208.71% 폭락한 16억 1000만 달러에 달했다. 어닝 쇼크(Earning shock) 후 인텔은 연내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하기로 하고 2024년 4분기 배당금 또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TSMC 등 인텔의 주요 경쟁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는 상황에서 인텔만이 곤두박질 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인텔의 중국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반도체 공급 허가 취소 결정과 산업계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CPU 수요 저하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론 ▲CPU 시장에서의 점유

율 악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 실패 ▲관료주의적 기업 분위기와 AI 트렌드의 과소평가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인텔의 핵심 사업이자 제품인 CPU 시장은 현재 AMD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AMD는 2017년 라이젠(RYZEN)을 발표한 후 압도적인 성능과 가격으로 시장 평가를 뒤집는 데 성공했고, 이를 기점으로 CPU 시장의 점유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반면 인텔은 2022년 출시한 코어 I 시리즈 13, 14세대가 불량 논란에 시달리는 등 약세가 연이었다.

머큐리 리서치가 지난 5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인텔은 그동안 CPU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써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 중이지만 경쟁사 AMD의 점유율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분기 AMD의 x86 클라이언트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3.6% 증가해 전체

17%에서 20.6%로 상승했는데, 같은 시기 인텔의 점유율은 1년 전 82.8% 대비 3.6% 하락한 79.2%를 기록했다. 서버 칩 점유율에선 AMD의 상승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서버 CPU 점유율에서 인텔은 76.4%, AMD의 23.6%를 각각 기록 중인데, 인텔은 전년 대비 6.1%p 줄어든 반면 AMD는 그만큼 늘었다.

재진출한 파운드리 사업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파운드리 업계의 양대산맥은 TSMC와 삼성전자로 꼽힌다.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과 공정 수준을 입증하고 삼성전자 또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인텔은 현재 파운드리 사업을 지속할 캐시카우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재진출하면서 인텔은 TSMC, 삼성전자와 경쟁하기 위해 초미세 공정 혁신과 초기 제조장비 확보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게 됐다. /김서현 기자 seoh@

## SKT, 美 유니콘 퍼플렉시티와 ‘AI 개인 비서’ 글로벌 출시

연내 미국 시장에 ‘AI 비서’ 선보여  
한국선 특화된 검색 엔진 공동개발

SK텔레콤은 미국 생성형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와 손잡고 차세대 검색 시장을 이끈다. 연내 미국 시장에 검색 기능이 강화된 ‘AI 비서’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 시장에 특화된 검색 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등 에이닷 점유율 확대에도 나선다.

유영상 SKT 대표는 4일 퍼플렉시티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기자회견

회를 열고 “AI를 통한 ‘대화형’ 검색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이 같은 협력 계획을 밝혔다.

### ◆‘상호 투자 협력 강화’

퍼플렉시티는 2022년 오픈AI 출신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가 창업한 미국 AI 스타트업이다.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에 속한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달 2억3000만 개 이상의 검색 요청을 처리한다.

SKT는 퍼플렉시티의 검색AI 기능을 SKT 가입자에게 1년간 무료로 제공하며 AI검색시장 저변 확대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를 위해 한국을 처음 찾은 퍼플렉시티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아라빈드 스리니바스(Aravind Srinivas)’는 SKT에 ▲상호 투자 ▲공동 마케팅 ▲A.(에이닷)과 글로벌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니바스 CEO는 “지금까지가 ‘검색 엔진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답변 엔진의 시대’다”라며 “퍼플렉시티 검색 엔

진은 제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유명 투자자들이 매일 쓴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상 SKT CEO는 “글로벌 AI 검색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퍼플렉시티’와의 협력은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들에게 AI를 통해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연내 美 시장 출격’

퍼플렉시티는 이번 개발을 위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SK텔레콤 자회사 ‘글로벌 AI 플랫폼 코퍼레이션(GAPCo.)’에 투자한다. GAPCo.는 글로벌 AI 시장을 무대로 글로벌 ‘AI 에이전

트’(PAA; Personal AI Agent)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PAA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AI 비서’ 서비스다. 이는 다수의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멀티LLM전략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소개하기 좋은 서울 맛집이 어디야?”와 같이 요청을 하면 PAA가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수의 LLM 후보군 중 퍼플렉시티 등의 검색 파트너를 연결하는 식이다.

SKT와 GAP Co.는 연내 베타 버전을 미국 시장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PAA를 개발 중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